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론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KIRA NEWS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회에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 원(입회 시 1회) · 월정회비 : 3만 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 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 원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축 콤플렉스

Good Architectural Complex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개인적으로 여러 번을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말이 '좋은 건축'이라는 표현이다. 최근 건축계 여기저기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보니 어리둥절하다. 그래서 '좋다'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무엇의 모습, 성질 또는 내용이 뛰어나 마음에 들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 표현은 객관적 상태를 말하기보다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일상에서 '좋다'라는 가치 기준이 첨예한 해석의 대립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단어나 표현은 아니다. 보편적 시각에서 '좋은 사람, 좋은 제품, 좋은…' 등으로 다양하게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표현을 어떤 구호나 목표, 또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는 의문이 든다.

좋은 건축(?)이라는 표현은 과연 누구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일까? 대충 평가가 좋은 대상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좋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인정하긴 어렵다.

예를 들어보면, 한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살고 있는 시골의 오래된 초가집은, 누추하지만 이들에겐 남의 집 헛간보다는 좋은 집이다. 그들에게 좋은 건축이다. 좋은 건축은 이렇듯 다분히 주관적인 표현이다. 이를 자칫 잘못 사용하면, 20세기 중반 선진 산업 국가들이 맹목적으로 강요하고 추종했던 유리 사각형 건축이 될 수 있다. 사계절 내내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중동에 지어진 뜨거운 유리 건물들은 지역적 감성과 역사, 문화에 대한 무지가 낳은 결과물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

'좋은 건축'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이 드는 이유다. 내가 좋다고 해서 남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평가와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우수한' 혹은 '최적의' 건축이라는 표현은 설득력이 있다. 건축은 '기능적 기준'에서 우수한 것일 수도 있고, '예술적 기준'에서 우수한 것을 말할 수도 있다. 또 기능에 치중해서 예술적 표현이 무시된 건축이나, 반대로 예술성에 치중해서 기능이 무시된 건축도 있다. 그런 건축은 실제로 건축사(建築史)에 등장해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건축상을 받은 경우도 많다. 이런 건축들은 어떤 시각에서 '좋은 건축'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값비싸게 낭비된 '나쁜 건축'일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좋은 건축'이라는 지극히 개인적 시각에서 설명하고 강조하기보다, 시대나 상황에 '적합한' 건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미학적으로 우수하고, 역사적 유산이 될 만한 비평의 가치대상으로서의 건축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건축을 '좋다/나쁘다'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구분 짓지 말자. 이 또한 콤플렉스 아닌가 싶다. 좀 더 자유롭게 건축을 다루면 좋겠다.

어느 한 시각으로 재단하기엔… 그렇게만 보기엔… 건축의 스펙트럼은 너무나 크다.